

광주시, 5월13~15일 세계인권도시포럼 연다

국내의 인권 활동가들이 광주에 모여 오월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4월1일부터 받는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네스코(UNESCO),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이 공동 주최하며 국내외 인권도시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올해 포럼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로 확산하는 권위주의 경향과 포퓰리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인권도시 광주의 민주·인권 가치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차원의 인권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인권도시 간 연대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4월1일부터 5월6일까지 진행하며, 신청 방법과 세

국내의 인권활동가 1000여명 '권위주의·포퓰리즘 대항' 논의

6개 분야 19개 프로그램 운영... 참가 사전 등록 5월6일까지

유엔 인권최고대표 최초 참석 기조연설... 인권도시 위상 증명

부 프로그램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www.whrc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럼은 ▲개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인권투어 등 6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전체회의에서는 국내외 도시 대표와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발생하는 인권 과제를 진단하고 인권도시의 역할과 실현 방향을 모색한다. 주제회의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여성, 인권마을, 장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현안을 다룬다.

특별회의에서는 포럼 대주제와 별도로 대학과 연계해 인공지능(AI) 시대 인권의제를 논의한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참여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민주주의

와 웰에이징을 주요 의제로 미래 인권 과제와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전국 광역자치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의 등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국·내외 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5·18 행사 및 사적지 등 인권현장을 방문하는 인권투어도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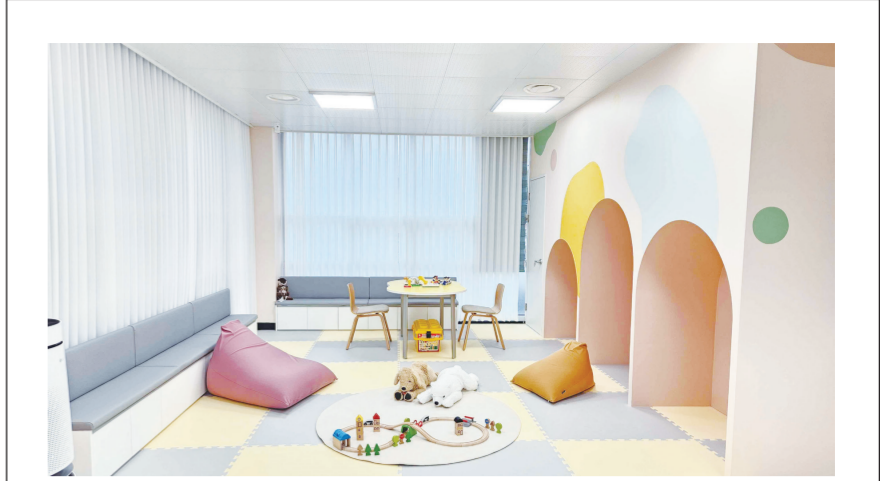
특히, 포럼 개회식이 열리는 14일에는 유엔의 인권 분야 최고 책임자인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확산 속 인권도시의 역할과 국제연대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오스트리아 출신 인권법 전문가인 튀르크 대표는 2022년 10월부터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튀르크 대표는 난민 보호와 국제 인권정책 분야에서 30



여 년 활동한 세계적 인권 전문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라며 "광주가 세계 인권도시 협력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북구, 광주 최초 아픈아이 돌봄센터 개소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내 88㎡ 규모 놀이·침대돌봄공간 조성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의 첫 번째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사업이 결실을 맺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이 강화된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정식 개소하고 '병행 동행·침대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 88㎡ 크기로 조성됐다.

앞서 북구는 2024년 11월 '아픈아이 돌봄센터 조성 사업'을 제1호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사업으로 선정하고 모금에 나서 한 달 만에 목표액 6

천만 원을 조기 달성했다.

이 예산을 활용해 지난해 말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놀이공간, 침대돌봄실 등이 포함된 아동 친화 공간을 완공했다. 이어 올해 2월 사회복지법인 우성나눔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준비를 마쳤다.

돌봄센터에서는 이달부터 '아픈아이 병행동행·침대 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녀와 병행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동행지원사가 진료·약 처방부터 귀가까지 책임진다. 병원 방문 후 즉시 귀가가 어려운 아동에게는 센터 내 마련된 공간에서 침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송현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소상공인을 위한 '하루 천원 착한 광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천원의 동행' 정책을 확대한다.

서구는 4월부터 관내 전자계시대 2곳(선한병원 인근 기 설치, 농성역 1번 출구 인근 4월 중 설치 예정)를 활용해 '천원 광고'를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며 광고 요금은 하루 1000원으로 10일 기준 1만원, 1개월 기준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광고료(1개월 10여 만원) 대비 약 7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광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서구, '천원 광고'로 소상공인 홍보 지원

광고비 70% 절감... 저비용 고효율 공공광고 모델 제시

광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밤 12시)까지 송출되며 15초 분량으로 하루 80회 이상 반복 노출돼 저비용으로도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공공·상업광고 등 총 50개 광고를 순환 방식으로 표출해 다수 업체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광고물 제작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기반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업체 특성에 맞는 디자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은 매일 1일부터 7일까지 가능하며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관련 서류

를 준비해 서구청 도시공간과(062-360-7451)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js717620@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공공이 함께 나누겠다는 '천원의 동행' 철학을 담고 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 안에는 골목경제를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공공의 책임과 연대의 가치가 담겨 있다.

서구는 이를 통해 저비용으로도 효과적인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경

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천원 광고는 소상공인의 광고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 광고 매체 이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라며 "천원의 동행"처럼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천원택시, 천원정리수납, 천원국사, 천원피크닉 등 다양한 '천원의 동행' 정책을 통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박석우 기자

광주 남구, 'AI 스마트 민원 챗봇 서비스' 도입

다국어 지원 등 편의 강화... 원스톱 행정 척척

광주 남구는 상반기 중 지역 자치구 최초로 관내 주민들의 민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AI 스마트 민원 챗봇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1일 남구에 따르면 AI 스마트 민원 챗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민원의 질의에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이다.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전화 또는 방문 중심의 민원 처리 방식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AI 챗봇 도입 시점은 오는 5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데이터 디버깅 과정을 거쳐 챗봇 개발을 완료한 뒤 5월부터 본격적인 테스트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어(일상어) 처리 기술을 활용

해 단순 키워드 검색이 아닌 민원인의 질문 의도와 문맥을 파악한 뒤 최적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챗봇 시스템을 설계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관내 주민들은 AI 챗봇을 통해 여권과 가족관계 등 민원 상담을 비롯해 각종 민원 서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챗봇과 대화 중에도 민원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이메일로 즉시 받을 수 있으며, 다국어까지 한번에 지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복적인 민원 문의는 AI 챗봇이 처리하는 대신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민원은 담당자가 집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원 서비스의 품질까지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민원인의 주요 관심 사항과 불편 요소를 파악해 향후 정책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서다. /임채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이를 위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안심번호(일회용 가상번호)는 총 9만개로, 성별·연령별·지역별(광주, 전남 22개 시·군) 인구 비례에 맞춰 미리 확보해뒀다. 유효 응답 표본수는 3000개로, 통상 정치여론조사(500~1000명)보다 큰 것으로, 정밀도와 등가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관이 직접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 5차례 진행된다.

경선 레이스 막판 숨 가쁘게 진행된 합종연횡과 빅텐트는 판도 변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후보는 전남 동부권 주자인 주철현 후보와의 1대 1 단일화와 정책 연대로, 광주권 지지기반을 넘어 전략적인 전남 동부권으로 교두보를 확장했다.

신정훈 후보는 '40년 민주화 동지'이자 현직 광주시장인 강기정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며 '강-신 연대'를 구축, 광주와 전남을 잇는 조직력을 강화했다.

전남지사인 김영록 후보는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박광태 전 광주시장, 4선 중진 이계호 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등과 빅텐트를 구축했다.

승부의 열쇠는 동부권 표심과 지역 구

도가 쥐고 있다. 권리당원 수가 전남(22만명)이 광주(11만 명)보다 두 배 가량 많아 전남 기반 후보가 유리해 보이지만, 광주와 인접 시·군을 묶는 권역별 결집이 일어날 경우 결과는 안갯 속이다.

TV 토론회에서 불거진 '재산 논란' '친명 마케팅' '정체성 공방' '과거 행정' 등 네거티브 여파가 실제 투표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각 후보 캠프는 SNS와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합지원금 20조 원 활용법 등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부동층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 평가 관계자는 2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든 3자 구도인 만큼 12~14일

치러질 2인 결선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본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지지층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최종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강기정, 주철현 후보는 각각 신정훈, 민형배 후보와의 단일화 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기동취재부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